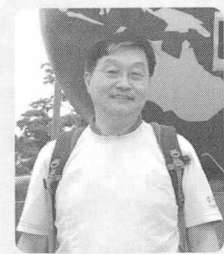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하여



전 의 찬 세종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 02-469-5558 ecjeon@sejong.ac.kr

〈 필자약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관리전공(이학박사)
- 세종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 대외협력처장
- 중앙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
- 서울환경연합 서울CO2위원회 위원장
- 생명의 숲 문화교육위원장
-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푸른 하늘’은 없다

아이들이 그리는 하늘은 푸르지 않다. 요즘 아이들이 그리는 하늘은 희뿌옇고, 심지어 까맣기까지 하다.

“아이들이 거짓말할리 없으니, 이제 우리에게 ‘푸른 하늘’은 없는 것이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소위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에서 부끄럽게도 1위이다.

그 뿐인가?

자동차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산화물은 조금 낫다는 것이 세계 2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4,700여만명의 48%가 넘는 약 2,300만명이 12% 정도에 불과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모여살고 있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되니, 물자수송과 출퇴근을 위한 교통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또, 직장가 가정의 냉난방, 여러 공단에서의 생산과정에서 엄청난 연료가 소비되고, 연료 연소과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우리 공기 속으로 집중적으로 배출되면서, 서울 하늘은 이제 검게 변색되었다.

철도 제 ‘철’을 잊어버리고...

요즘은 날씨도 제 철이 없다. 장마철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더니, 장마가 끝났다는 보도가 나오기 무섭게 8월 들어서만 12일까지 매일 비가 내렸고, 이틀에 한번은 열대야가 계속되었다. 최저기온이 25℃ 이상이 되는 무더운 열대야가 8월 한 달에만 11일이나 발생하였다. 그리고 기상은 얼마나 불순한가? 해가 비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우산살이 부러질 정도로 강한 비가 내려치기도 한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석하였다. 지구온난화로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이것이 대도시의 열섬현상과 겹쳐서 발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에 도시 열섬현상이 겹쳐져서, 지난 100년간 지구평균보다 두 배나 높은 1.5℃의 기온상승을 보였다.

또, 최근 국립기상연구소는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여름은 10월까지 6개월이나 계속되고, 또 50년 뒤 부산과 목포에서는 겨울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수천 수만년의 삶과 생존 자체가 현재 기후에 적응하여 살고 있는 우리 국민과 생태계에는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하늘' 의 응징이다.

우리는 푸른 하늘을 보면서 자랐고, 언제나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늘은 늘 푸르고, 그 푸른 하늘에서 햇살은 맑게 비치며, 시원한 산들바람이 불어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우리는 아파트에서 겨울에도 반팔로 지내며, 커다란 자가용을 타고 편하게 이동하며, 심지어 산 정상에서도 핸드폰으로 소통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사이 하늘은 더 이상 푸른색이 아니다. 햇빛은 푸연 대기 사이로 힘겹게 통과하고, 불어오는 바람은 후덥지근하며 오염의 냄새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 우리의 하늘, 우리가 숨 쉬는 대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오염될 대로 오염되고 말았다.

대기오염이 이처럼 심해진 원인은 무엇인가?

강남에서 남산이 잘 보이지 않고, 북한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늘' 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늘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여 아무리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여도 다 처리할 줄 알았지만, 하늘에도 환경용량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은 하늘을 '한울님' 이 사는 것으로 알고 중요한 때면 祭天儀式 을 거행하였지만, 지금 세상의 우리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기오염으로, 수도권에서만 1년에 1만 1천명이 조기 사망하고, 연간 10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무지와 편견과 오만에 대한 하늘의 응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러분의 변화와 동참이 절실하다.

북한산에서 인천 앞바다가 보이도록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4년 말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향후 10년간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7년 7월 1일부터는 대형 사업장에 대기오염 총량제가 적용되어, 공장 굴뚝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푸른 하늘을 다시 보고 싶다면?

어린 자녀들과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면서 얘기하고 싶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나서야 한다.

에어컨 온도는 높이고, 난방온도는 낮춰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대도시의 대기오염물질을 대부분 배출하는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촉구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동참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2006년부터 "세계 차 없는 날"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고, 올해는 9월 20일(오후 3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런 기회가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고, 실천방안을 알아보는 데 다시없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진정 '푸른 하늘'을 되찾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의 변화와 동참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소중하다 하겠다.